

마음과 행동이 말씀에 일체되어야
마음이 청결해진다

작성일 : 2010. 10. 16. (토)

작성자 : 이선진 (분당 제일교회 평화오케스트라)

[10월 17일 주일말씀 ‘정리하여 청결하게 하라’
말씀을 읽고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선생님을
통한 주님의 말씀이라는 온전한 뼈대를 주셨으니,
이젠 저를 통해 주님께서 이 뼈대에 살을 붙여
주실 차례입니다. 이 귀중한 뼈대에 살을 더하는 말씀을
주세요.”]

* 예수님 말씀 *

사랑한다, 섭리사 신부들아.
이 말씀을 받기 위해
선생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얼마나 몸부림쳐 받은 말씀인줄 아느냐.
선생은 항상 실천하고 말씀 받았다.
이것이 너희와 그의 차이이다.

주일말씀, 수요일말씀, 계시말씀, 천국성령운동 말씀
등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선포되어졌느냐.
그렇지만 너희는 실천을 하면서
말씀을 받는 자 거의 없구나.

실천을 통한 말씀이기에
실천을 통해 말씀을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말씀이니라.
진정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
실천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지만
진정 이 말씀의 가치와 귀함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실상 섭리사 너희들도
실천을 통해 말씀을 받아들였더라면
더 잘 될 수 있었노라.
실천을 통해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앙이 견고해지고 마음이 단단해짐으로
진정 이 섭리사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을 것이다.

실천을 통해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은

신앙과 마음이 약해짐으로 쉽게 변질되고
그러다 섭리사를 나가게 되는 것이니라.

섭리사를 나간 자들은
실상 실천이 부족하였기로 나간 것이다.
그들을 보며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파선되는 자
들 또한
실천이 약해서이다.
그러니 신앙을 파선시키지 않고 마음이 변질되지
않으려면
결국은 실천이다.

실천을 통해 말씀을 받아야만
온전히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진정 이 같은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이니라. 알겠느냐.
마음과 행동이 일체되었다 함은
곧 말씀에 일체되었다 함과 같으니라.
그저 마음만 말씀과 같다고 해서
말씀에 일체되었다 함이 아니니라.

진정 말씀에 일체되었다 할 수 있는 것은
그 주에 떨어지는 말씀대로 온전히 살다가
그 다음 주에 떨어지는 말씀을
온전히 맞아 행하는 것이란다.
이렇게 해야만 너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습성, 습관, 혈기 등의 것들이
온전히 정리되고 청결케 되는 것이란다.

그러니
금주에 떨어지는 말씀대로 온전히 살다가
다음 주의 말씀을 온전히 맞은 후 행하는 것이
너희의 할 일이니라.

(“주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재림
전까지 사는 것입니까? 또 이렇게 살면 온전치 못
함으로 낙심하고 실족한 자들도 모두 온전해져 휴
거에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맞았다.
실상 너희가 말씀에만 일체되어서 살면
가지각색의 문제들이 사라진다.
하지만 말씀에 일체되어 살지 않으니
자꾸만 낙심이요 좌절이니라.

이젠 알겠지?

섭리사 신부들 잘할 것으로 믿노라.

섭리사를 축복하노라.

안녕, 나 예수가.